

‘平常心是道’... 색으로 빚어낸 中道の 미학

동양화가 이월종 화백 ‘제주생활의 중도’ 전시회

〈선문염송(禪門拈頌)〉에는 이런 일화가 있다. 한 승려가 마조도일에게 어떤 것이 도인가를 물었다. 이에 마조도일은 “평상심이 도(道)”라고 답했다. 이는 깨달음을 특별한 것이 아니며, 일상생활에서 번뇌가 없고 그 자리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다.

‘제주생활의 중도’라는 단일 주제로 27년동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월종(71, 사진) 화백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가르침을 여실히 작품 안에서 구현하는 작가다.

이 화백은 제주도의 이국적 정취와 풍광을 다양한 매체로 표현해 낸다. ‘중도의 미학’을 관통하는 이 화백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개인전이 오는 6월 12일까지 서울 사간동 현대화랑에서 개최된다.

4년 만에 열리는 이 화백의 전시회에는 회화, 한지부조, 목조, 도자기 등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작품 30점을 만날 수 있다. 총 세 공간으로 나누어진 이번 전시는 1층 전시장에서 선보인 ‘제주생활의 중도’ 회화 6점과 목조 1점이 선보이고, 1층 안쪽 전시장에서는 한가로운 골짜기를 즐기는 모습을 통해 중도를 그려 화가 7점과 목조 작품들로 구성된 공간이 마련됐다. 2층 전시장에서는 작은 호수의 회화작품들이 화려한 색들과 맞물려 다양한 제주의 자연과 일상의 모습을 선보인다.

이 화백은 ‘생활 속에서’, ‘생활의 중도’ 연작들을 통해 기존의 동양화의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1990년부터 제주에 정착하며 ‘제주생활의 중도’라는 단일 주제로 작품을 계속해왔다. 일률적인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화백의 화

두는 ‘중도’다. 이 화백의 ‘중도’는 분별없는 평상심이다.

이에 대해 이 화백은 “중도란 평등을 추구하는 내 자신의 평상심에서 시작된다”며 “마음의 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일고 있는 양면성을 융합시켜 화함으로써 승화시키는 것을 이른다. 주제나 객체가 없고 크고 작은 분별도 없는 절대 자유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화백이 추구하는 ‘절대 자유의 세계’는 그의 작품 안에서 다양한 제주의 풍광과 인간 군상 그리고 화려한 색채로 표현된다.

6월 12일까지 서울 현대화랑서
회화·한지부조 등 작품 30점 선보
4년만의 전시... 작가 역량 총망라

“중도는 내 안의 평상심서 시작
주체와 객체 없는 대자유 추구”

그가 펼치는 작품 안에서 ‘중도의 세계’는 자연과 인간의 일상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펼쳐진다. 남편과 밥상에 마주앉아 잔소리를 늘어 놓는 아내, 짝 지어 노닐고 있는 사슴, 개에게 밥을 주는 사람, 열중하여 골프를 치는 무리, 나뭇가지마다 앉아 지저귀는 새들의 모습은 우리가 꿈꾸는 소소한 일상이다.

이 같은 작품 세계에 대해 김종근 미술평론가(홍익대 겸임교수)는 “‘생활 속의 중도’에서 ‘제

주생활의 중도’로 주제가 크게 확장되면서 하늘을 나는 물고기, 집보다 더 큰 꽃 등 시각적 형식이 변화했다. 어느 것은 오히려 사람보다 더 크게 그려지기도 했다”면서 “이 화백은 인간과 만물은 물고기나 새처럼 하나의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에 사물이 더 작을 필요도 없고 동등하다는 사실을 그림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로 27



년째에 접어드는 이 화백의 제주도 생활은 그가 걷고자 하는 중도의 길 그 자체이다. 2013년 건립된 ‘월종미술관’은 개원 후부터 10여 년 이상 꾸준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미술교실도 열어 봉사한다.

배풀고 나누며 조화로운 삶을 꿈꾸는 화가 이월종은 ‘중도적 삶’을 이렇게 노래한다.

“존재하는 것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며, 또한 그림자와 같다는 법문이 실감난다. 몸과 마음속에서 악취나는 것을 씻어내는 마음공부를 하면서 모든 존재는 연기(緣起)에서 이뤄지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평등하다는 것을 하얀 종이 위에 담는다.” (02)2287-3591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월종 화백이 서울 사간동 현대화랑에서 열리는 자신의 전시회 작품인 ‘제주생활의 중도’ 연작 시리즈와 함께 하고 있다.

유심작품상에 곽효환·김호길·이도흙·이영춘

만해선양회, 14회 결과 발표
8월 11일 만해축전서 시상식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유심 작품상의 올해 수상자가 발표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5월 23일 “14회 유심 작품상 수상자로 △시 부문에 곽효환(시인) △시조 부문에 김호길(시조시인) △학술 부문에 이도흙(한양대 교수) △특별상 부문에 이영춘(시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 부문에 선정된 곽효환 시인의 수상작은 ‘마당 건너다’로 그 옛날 한국의 가정에 빈번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지해 왔던 저녁 그림을 미려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조 부문의 김호길 시조시인은 ‘모든 길이 꽃길이었네’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단은 김호길 시인의 시조에 대해 “우리는 ‘지나온 모든 길이 아름다운 꽃길’이라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생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적박하고

비정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환경과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감회가 순화과 승화의 시간을 건너 응결된 사리 같은 잠언시”라고 평했다.

이도흙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로 학술 부문 수상자가 됐다. 올해 원효학술상 특별상에 이은 쾌거다.

심사위원단은 “마르크스가 주로 사회구조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원효는 일심(一心)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해 사회를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면서 “이 교수는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와 사회를 온몸으로 겨냥고자 하

는 실천적 지성의 모형을 학자적 삶의 영역에서 시도하고 있다”고 수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영춘 시인은 후학 양성과 지역 문단 활성화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이영춘 시인은 문학의 불모지였던 춘천에서 1974년부터 〈삼악시〉 동인의 창립 멤버로 그 지역에 문학의 혼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작품상 수상자에게는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8월 11일 만해축전 기간에 이뤄진다.



곽효환 시인



김호길 시조시인



이도흙 교수



이영춘 시인

산은 멀리서 볼 때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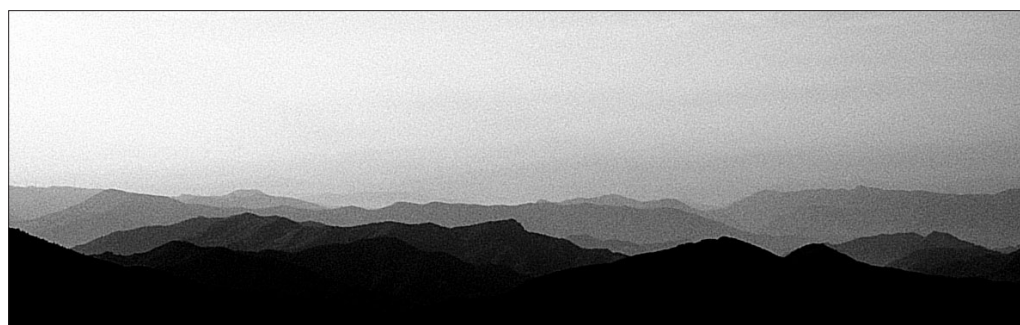
불일미술관, 6월 12일까지 박정훈 사진전

산은 오르는 과정이 의미도 있지만, 멀리서 조망하는 것도 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우리 산이 가지는 원경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서울 편편사 산하 불일미술관은 오는 6월 12일까지 박정훈 사진작가의 사진전을 개최한다. ‘먼 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자연의 장엄과 아름다움을, 특히 우리에게 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해낸 작품들이 전시된다.

박정훈 작가는 “우리 산능선의 아름다움을 찾아 왜 해매었다. 산을 촬영하기 위해 절과의 인연을 맺고 스스로 산주(山主)라 여기고 이산 저산을 넘어 농담 짙은 산을 촬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산은 먼 산 바라보듯 해야 재밌다. 먼 산 보듯 눈길을 풀어놓으면 바로 걸어진 게 있고 일상이 됨을 차분하게 응시할 만하다”고 말했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박정훈 사진작가의 작품 ‘먼 산’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 칼라 산업 지붕 공사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 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중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 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할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말소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충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범민스님의 **산사 음악회** CD 발매

범민스님은 2004년 범어사 계명암오솔길을 직접작사하여 찬불가음반을 발표하고 2006년 목탁새 노래방 방송 활동 중이며 2016년 3월에는 일본 고베 컨벤션 센터에서도 콘서트공연을 가졌다.

현재 전국가요대행진 등 복지TV, 실버TV, 아이넷TV, MBC넷 등 방송 활동과 산사음악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음반 수록곡으로 소원·업보·넘이오는 소리·상념 등이 있다.

각종 사찰행사에 음성 공양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곡원 다산불원
051-231-6455 / 010-9049-0016

산사음악회 CD 목차

- 1 목탁새
- 2 계명암 오솔길
- 3 백암기도
- 4 소원
- 5 업보
- 6 상념
- 7 사랑은 주는거야
- 8 넘이 오는 소리
- 9 목탁새 (slow)
- 10 목탁새 경음악